

2016년 4분기 조회

“한마음으로 위기 타개하자!”



2016년 4분기 조회가 10월 4일(화) 오전 10시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김진원 사장은 인사말에서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한 뒤, 광고와 편성 등에서 지상파 방송에 가해지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를 위해 SBS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자고 말했다.

또 김진원 사장은 주말 프라임시간대 콘텐츠 경쟁력과 킬러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뒤,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콘텐츠를 생산해 경쟁사들을 압도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사장은 SBS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남들보다 먼저 문화콘텐츠기업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3분기 비전실천상과 특종상, 기획보도상, 뉴미디어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6 3분기 비전실천상

- 아나운서팀 박선영 | 교양4CP소속 박지은
- 예능3CP소속 김한진 | 시민사회부 김종원
- 기술인프라팀 김학현 | 드라마운영팀 서균
- 라디오편성기획팀 손주영 | 광고운영팀 김양현
- 정책팀 박재효 | 모바일사업팀 소형석

2016 3분기 특종상 금상 시민사회부 박상진

- 2016 3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정책사회부 남주현
- 2016 3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시민사회부 조기호

김진원 사장 연설문

“위기상황은 지속될 것...혁신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SBS 가족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 때문인지 선선한 가을 기운이 더없이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리우 올림픽을 무사히 마쳤고, <닥터스>가 평균 가구시청률 20%를 넘기며 드라마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S위원회>와 <S-TF>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혁신의 단초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S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이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기만 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최악의 경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SBS TV 광고판매율은 35.3%로 1998년 IMF 때 54.8%, 2009년 금융위기 때의 51.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8월은 26.2%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수지는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SBS 가족 여러분!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SBS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선 지상파 차별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한류를 이끌어 온 우리 문화의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의 생존 터전인 지상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고와 편성 등에서 지상파에 가해지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를 위

해 SBS 구성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합니다.

일등방송의 가치를 내걸고 회사의 자원을 투입해 왔지만 주말 프라임타임 대에서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킬러콘텐츠의 빈자리는 CJ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재빠르게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영리하게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고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진정한 일등방송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인사는 혁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내일로 미룰 수 없듯이 변화와 혁신은 SBS 구성원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업입니다. SBS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습, 프로세스, 문화가 변화해야 합니다. 약속된 기한과 비용을 지키고 나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동규칙입니다.

SBS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물여섯 청년의 나이에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도전의 DNA로 혼연일체가 되어, 남들보다 먼저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해야”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42%는 언론사라고 한다. 윤리경영팀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달 20일 사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우형 윤리경영팀장은 “사안에 따라 법 저촉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향후 판례의 형성,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법 적용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WISE 첫 화면 우측 메뉴의 [윤리경영]에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해설 자료들과 신고 양식, 질문/답변 게시판 등이 마련돼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문의를 윤리경영팀(구내 3593, 3595)으로 하면 된다. 다음은 이 법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이다.

Q&A

● SBS 미디어그룹 소속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SBS(지상파방송사업자), SBS플러스/스포츠/골프/바이아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단, A&T, 미디어크리에이트, 콘텐츠허브, 홀딩스, 인터내셔널 임직원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기자, PD 등 방송제작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가?

기자, PD 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과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시청 자위원회 위원이나 파견직 근로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프리랜서 PD나 외주제작 PD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언론인에 포함되는가?

방송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VJ, 작가, 출연자, 외주 제작사, 해외통신원, 시설관리, 경비, 식당운영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만 접대, 금품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가액기준 이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이거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계약,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접대 받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 직무 관련 외부인이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괜찮은가?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주류 등이어야 한다. 방송사 직원끼리 식사하는데 직무 관련자가 대신 결제해 준 경우는 1인당 3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도 처벌(과태료)된다.

● 5만 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받아도 괜찮은가?

골프 접대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법 위반이다.(골프회원권을 이용한 할인 혜택도 접대에 해당함)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회사창립일에 보내는 난, 화환 등은 얼마까지 허용되는가?

10만 원 이하로 수수를 허용하는 경조사는 결혼(본인 및 직계비속)과 장례(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로 한정한다. 따라서 승진, 회사창립일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등은 사고,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로만 허용된다.

● 사고,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받는 경우는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어떻게 되나?

음식물(식사+음료+주류 등)은 3만 원, 음식물과 선물 동시 제공은 합계 5만 원, 음식물, 선물, 경조금, 화환 동시 제공은 합계 10만 원이 허용되는 가액이다. 단, 음식물, 선물은 각각 3만 원, 5만 원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45,000원의 식사와 5,000원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음식물 3만 원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된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를 반환하면 되는가?

음식물은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된다. 선물은 초과 금액이 아니라 받은 선물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 직무와 관련된 A 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표이사 명의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B 임원이 10만 원의 경조금, C 팀장이 10만 원의 경조금을 보냈을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국민권익위에서는 참석자간 상호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10만 원이 넘으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소위 ‘쪼개기’ 방식을 사용하여 상호 연락하여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했을 경우는 법 위반이다.

●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나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가?

청탁금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한 청탁을 받고 보도, 제작을 하는 것은 SBS 윤리강령(SBS 임직원은 사내, 외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위를 이용한 청탁 또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기자나 PD가 취재원 또는 연예제작사 관계자로부터 기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 요청과 함께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법 위반인가?

요청 과정에서 접대가 있었을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 받아도 처벌받게 된다.

●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 금지 품목의 예외사항이므로 식사가 통상적인 금액일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예외사항에 선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만원이 넘는 선물일 경우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품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금품 수수를 약속하거나 요구만 해도 처벌되는가?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의 약속, 요구도 금지하고 있고 수수의 경우와 동일한 징계와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받았을 경우 거절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하는가?

부정 청탁은 1회 받으면 거절만 하면 되지만 재차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거절과 함께 회사(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 의사를 받았으면 거절하고 회사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내부 징계를 받게 된다.

● 현재는 해당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과거의 직무와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접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국민권익위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범위에 대한 판례에 따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같은 금액의 식사를 해당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해 주면 청탁금지법 상 면책될 수 있나?

두 개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며 나중에 같은 금액의 식사를 제공해 준 것을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될 수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

‘SDF 넥스트미디어챌린지 2016’ SBS 25년 영상 메타데이터 창고 외부에 첫 개방

‘SDF 넥스트미디어챌린지 2016’이 10월 14일(금)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열린다.

SDF 넥스트미디어챌린지는 SDF(서울디지털포럼) 버티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보도본부 미래부에서 개최해온 미디어 분야의 스타트업 경진대회다.

‘동영상,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46팀 162명이 지원해 15팀 58명이 본 대회에 진출, 영상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스타트업들에게 SBS 동영상 포털 개방형 아카이브의 API 계정을 부여, SBS의 영상 메타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부 이정애 기자는 “세상은 더 많이 개방하고,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이번 챌린지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 SBS API를 공개하는 실험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협업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사업팀 우수현 동영상포털담당은 “영상을 만드는 데 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드는데 소비는 숏테일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적 DB로 만드는 게 방송사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스타트업계에서는 산업을 같이 키워가는 상생의 차원에서 이번 SBS의 시도를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나올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 권지윤·박원경 기자 ‘이달의 방송기자상’ 국내 관광산업 발전 기여 <런닝맨> 국무총리 표창 수상

뉴미디어제작1부의 권지윤·박원경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제9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전문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두 기자가 보도한 데이터 저널리즘 대기화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남용 대책을 촉구했으며, 역대 사면 내역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29일(금)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영상취재팀 이병주 기자, 뉴미디어제작1부 권지윤 기자, 분석가 한창진, 개발자 임송이, 이주형 뉴미디어제작1부장, 박원경 기자



<런닝맨>이 한류 전파와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6 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달 27일(화)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렸으며 <런닝맨>의 기획자 남승용 선임PD가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관광진흥 유공 정부 포상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PD가 수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 이 사람 - <미운 우리 새끼> 광승영 PD

“시청률 일등 공신은 어머니들... 사이 돈독해져 더 기대해도 좋다”

시청률이 동시간대 1위는 물론이고 전국 기준 10%도 넘었다.

파일럿부터 반응이 좋아서 좀 기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10%를 넘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한다. 시청률이 잘 나오게 된 가장 큰 공은 우리 <미우세> 어머니들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것 같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 안 한 싱글은 늘어가고 있다. 자식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식당 같은 곳에서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식을 디스하다가도 누가 동조하면 다시 자기 자식 옹호에 나서는 등 재밌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능을 만들자 생각했다. 실제로 방송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아들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부모님 세대는 어머니 이야기에 공감 하시더라.

각 어머니들의 장점을 말해 달라.

어머니들마다 다양한 매력에 있는데, 공통적으로 입담이 좋으시다. 특히 김건모의 어머니는 방송 한 달여 만에 ‘맘크러쉬’ 등 자신만의 캐릭터가 생길 정도로 개성이 강하다. 아들들 향해 독설과 옹호를 오가는 솔직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때로는 MC들에게도 기습 질문을 해 베테랑 MC인 신동엽마저 당황할 때가 있다. 박수홍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중간에서 온화하게 웃으며 조율 역할을 해주시는 동시에, 은근히 할 말을 다 하셔서 예상치 못한 웃음을 주신다. 말수가 적어서 가장 걱정했던 허지웅의 어머니는 오히려 돌직구 사이드 화법을 구사하며 강한 멘트로 아들들 디스하기도 하고, 가장 연세가 적은 만큼 젊은 시선으로 아들들을 옹호해주시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토니안 어머니는 워낙 친화

력이 좋아서 남의 아들도 내 아들처럼 생각하며 진심을 담은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 다양한 어머니들의 매력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보통의 어머니들과 같이 모성애가 담긴 시선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 해주신 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게 아닌가 싶다. 어머니들의 사이도 돈독해졌다. 앞으로 보여줄 어머니들의 조화와 매력도 기대해 달라.

누가 제일 먼저 솔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나?

잘 모르겠다. 모 포털 사이트에서 “미운 우리 새끼 출연자 중 누가 먼저 결혼할까” 설문조사 한 걸 봤는데, 김건모 씨가 꼴등하긴 했더라. 하하.

사원들에게 한 마디.

이 자리를 빌려 너무도 고생하는 작가들과 후배 최소형 PD, 조연출 김한진, 류지환 PD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늘 열심히 해주는 외부 인력들에게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마음의 빔을 지고 있다. 더불어 <미운 우리 새끼>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시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린다. 더 열심히 하겠다.



광승영 PD (왼쪽 두 번째)

코믹, 감동 로맨스 <미녀 공심이> 인센티브상 수상



올해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송된 특별기획 <미녀 공심이>(극본: 이희명, 연출: 백수찬)가 2016년 9월 인센티브상을 수상했다.

<미녀 공심이>는 명칭한 엄마의 머리와 아빠의 못 생긴 외모 등 나쁜 유전자만 물려받은 공심이 아름다운 마음씨 하나로 사랑을 쟁취하는 스토리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 많은 인기를 얻었다.

더 화려해진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 10월 8일 개최



SBS와 한화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월 8일(토)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해마다 100만여 명의 관람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밤 추억을 선사해왔다.

올해 불꽃축제에는 일본과 스페인, 한국 등 3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여, 총 10만여 발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불꽃으로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도 불꽃바지선을 설치, 여의도 전체를 아우르는 와이드한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해마다 100만여 명의 관람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밤 추억을 선사해왔다.

신간 소개

<좋은 아침> 인기 코너 '하우스'가 책으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 저자 SBS <좋은 아침> '하우스' 제작팀 • 출판사 청림Life



<좋은 아침>의 인기 코너 '하우스'(하나뿐인 우리 집 스토리)를 책으로 엮은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가 나왔다.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하우스'는 치솟는 전셋값과 아파트 시세에 떠밀리듯 외곽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는 대안이 없는 요즘, 남다른 아이디어로 도심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그들만의 특별한 하우스를 소개한다. 작지만 개성 있고 알찬 공간의 집,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집,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집, 부모님과 함께 세대 공감을 이루는 집,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효율적인 집, 세련된 인테리어로 카페보다 아늑한 집...

1년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우스'에서 소개된 100여 채의 집들 가운데 47채의 집을 엄선해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도심 속 협소주택/노후주택의 변신/수익형 상가주택/아파트와 빌라/특별한 테마하우스의 5가지 주제로 나눠 정리했고, '하우스'에 소개된 집들에 대한 애청자들의 Q&A와 건축, 인테리어 비용 및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다. 도심 속 자투리땅을 찾는 노하우부터 넓고 오래된 공간을 개조하는 법, 넓고 오래된 공간을 개조하는 법, 작은 땅에 집 짓는 방법, 공간을 활용한 최신 인테리어 팁까지 방송에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깨알 같은 정보와 못 다한 이야기까지 전한다.

외부 기고

“진심이 중요하다고? 때로는 말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 최철규

#1. 대학교 2학년 때다. 우리 과에 편입생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 보스턴 칼리지에 다니다가 편입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우연히 학생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됐고, 그 이후로 꽤 친한 사이가 됐다. 시골 출신인 나에게 문화적 충격을 줬던 장소인 '코코스'와 'JJ마호니스'를 처음 가르쳐 준 친구도 그였다. 많은 추억을 함께 쌓으며 결국 절친이 됐다. 그렇게 서로를 안 지 8개월쯤 된 날. 그가 내게 고백했다. “철규야. 나 사실 너보다 2살 더 많은 형이야”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친구관계가 아닌 형·동생 관계로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반말과 욕을 했다. 내가 처음부터 너무 당당하게 반말을 해서 나도 자기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의 설명이었다. 결국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는 나의 가장 편한 친구다. “홍석아. 아니, 홍석이 형! 미안해. 하지만 반말 덕분에 우리는 평생 친구가 된 거야”

#2. 후배 기자가 글을 써왔다. 완전 쓰레기다. 처음엔 좋게 말한다. “아마가 불분명해. 호흡도 너무 늘어서고. 다시 써봐.” 이런 일이 세 번째 반복된다. 결국 폭발한다. “네가 기자냐? 너 SBS 현관에 대리석 깔고 들어왔지?” 선배는 왜 후배에게 ‘막말’을 할까? 답은 하나다. ‘후배를 아껴서’

그런데 알고 있는가? ‘좋은 의도의 나쁜 표현’이 소통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무능한 리더일수록 좋은 의도를 나쁘게 표현하는 묘한 재주가 있다. 소통에 능한 리더는 판단화법을 쓰지 않는다. 대신 감정설명 화법을 쓴다. 그리고 내 말의 의도를 상대에게 설명한다.

예를 들자. 어떤 후배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15분씩 지각한다. 이때 무능한 리더는 후배의 행동에 대해 판단한다. “회사가 동아리냐? 너 어제도 술 마시고 퍼졌지?” 후배가 회사를 동아리로 생각하는 게 사실인가? 아니다. 단지 리더의 판단일 뿐이다. 유능한 리더는 판단 대신,

자신의 감정과 내 말의 의도를 설명한다. “당신이 15분씩 늦게 오니까, 아침 회의가 늦어지고 우리 팀의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 같아 화가 내(감정설명). 팀 분위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출근시간은 꼭 지켰으면 좋겠네(의도).” 판단보다 감정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의 뇌 구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감정을 유발하는 편도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두엽이 점잖은 선비처럼 뒤에서 생각하는 존재라면, 편도체는 뇌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앞에서 외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한다. 판단 화법은 대부분 편도체를 자극하고 뇌에 부정적 감정을 퍼뜨린다. 그 결과 전두엽은 생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이성(전두엽)이 멈춘 상황에서 리더가 던지는 말은 후배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결국, 리더가 어떤 화법을 쓰느냐에 따라 후배의 행동이 달라진다.



#3. 소통에 약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관용구가 있다. “내 진심은 이게 아닌데.” 슬프게도 내 진심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소통의 핵심이다. 어떻게 해야 상대가 내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때로는 내용(진심)보다 형식(화법)이 중요하다. 마치 반말이 친구관계를 만들 듯. 칸트도 말하지 않았던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